



## ▶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

기간	운용전문인력
2019.01.25 ~ 현재	최미영
2019.01.24 ~ 현재	김태현
2021.07.16 ~ 2025.09.26	윤유라

## 5. 비용 현황

### ▶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

구분	전기		당기	
	금액	비율	금액	비율
자산운용사	0	0.02	0	0.02
판매회사	0	0.11	0	0.11
펀드재산보관회사(신탁업자)	0	-	0	-
일반사무관리회사	0	-	0	-
보수합계	0	0.14	0	0.14
기타비용	0	0.03	0	0.06
매매	단순매매 증개수수료	0	-	0
증개수수료	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	0	-	0
	합계	0	-	0
증권거래세	0	-	0	-

\* 펀드의 순자산총액(기준평잔)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.

\* 기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,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,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, 증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.

\* 성과보수내역 : 해당 없음

\* 발행분담금내역 : 해당 없음

\* ESG관련내역 : 해당 없음

### ▶ 총보수, 비용비율

	총보수·비용비율(A)	매매·증개수수료 비율(B)	합계(A+B)
전기	0.6481	0	0.6481
당기	0.7603	0	0.7603

\* 총보수비용비율(Total Expense Ratio)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'보수와 기타비용'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종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.

\* 매매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(보수비용 차감전 기준)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종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.

## 6.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

### ▶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

#### 가.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

-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: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, 주식,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.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·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유동성 위험: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의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환경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재간접 투자위험: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서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 할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.

- 해외재간접구조 현황

1) 해외운용사명: Fidelity Investment Management

2) 해외소재지: 르센보르크

3) 해외운용전문인력: Daniel Roberts

### ▶ 주요 위험 관리 방안

#### 가.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

-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,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결정,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#### 나.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

-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(factsheet)를 제공 받고 있으며, 이는 운용 성과, 자산구성현황, 투자비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### ▶ 주요 비상대응계획

-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,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속성계획(BCP)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'글로벌부당인컴주식FOF(달러형)'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(50억원 미만)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)
--